



2006. 02. 제 7 호

금천의회보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요내용 안내

- 의장인사말
- 제4대 정례회 · 임시회 개최현황
- 제98회~101회 (정례회 · 임시회) 주요안건요약
- 특별위원회 활동
- 구정질문 및 답변
- 사진과 언론으로 본 의정활동 소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http://council.geumcheon.go.kr>



의장 / 인사말

힘찬 출발과 비상을 다짐한 병술년 새해에, 금천구의회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재조명하기 위한 「금천의회보 제7호」가 발간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는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을 펼치고자 시작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제도는 상당부분의 권한이 자치단체장에게 편중 되어 있고, 아직까지도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그리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중앙정치권의 보수적인 사고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민주주의의 참다운 학교로서 그 역할과 책무가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생활자치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볼 때, 앞으로 지방의회가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에는 넘어야 할 장벽이 너무나도 많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 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지방의원은 집행부에 대한 올바른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 하는 길만이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이끌어 내고, 하루빨리 지방자치를 정착 시킬 수 있는 길이라 굳게 믿으며, 지방자치의 주체라는 인식을 스스로 각인시켜 항상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호흡하며, 양심적으로 행동하는 모범적인 자세를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여론수렴을 위한 의회 홈페이지 활용 및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를 지향하고, 지방화 시대의 특성을 살리면서 지역균형발전 및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아무쪼록 대망의 새해에도 지역공동체의 화합과 구민의 뜨거운 열정을 한데 모아, 미래를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경쟁력 있는 금천의 새 역사를 창출해 나가는데 있어서 구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06년 2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

이 공혁

제4대 금천구의회 정례회·임사회 조례 및 의안처리 현황

● 2005년 하반기 본회의 운영

['05. 7. 1 ~ '05. 12. 31 현재]

개 최 회 수			회 의 일 수			처 리 안 건		
소 계	정례회	임사회	소 계	정례회	임사회	소 계	정례회	임사회
4	1	3	42	22	20	62	26	36

● 회계별 세부처리 내역

연번	집 회 명	회 기	개최일수	처 리 안 건
1	제98회 임시회	2005년 8. 23 (화) ~ 8. 30 (화)	8일간	▷ 총 11 건 - 조 례 안 : 4건, - 예 산 안 : 1건 - 계 획 안 : 2건, - 결 의 안 : 1건 - 현장활동 1회 2개소, - 기 타 :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해대책특별위원회
2	제99회 임시회	2005년 9. 26 (월) ~ 9. 30 (금)	5일간	▷ 총 13 건 - 조 례 안 : 2건, - 의견청취 : 1건 - 보 고 : 7건, - 구정질문 : 1일 - 현장활동 1회 2개소, - 기 타 :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 조기착공대책특별위원회
3	제100회 임시회	2005년 10. 26 (수) ~ 11. 1 (수)	7일간	▷ 총 12 건 - 조 례 안 : 2건, - 계 획 안 : 6건 - 보 고 : 1건, - 결 의 안 : 1건 - 기 타 : 2건
4	제101회 정례회	2005년 11. 25 (금) ~ 12. 16 (금)	22일간	▷ 총 26 건 - 조 례 안 : 4건, - 예 산 안 : 2건 - 계 획 안 : 14건, - 업무보고 : 1일 - 구정질문 및 답변 : 1회 3일 - 기 타 : 5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 추진특별위원회,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 착공대책특별위원회





의정활동 주요안전 처리요약

제98회 임시회 (2005. 8. 23 ~ 8. 30)

■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원의의정활동비 · 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대통령령 제18991호, 2005. 8. 5) 되어 공포됨에 따라 지방
의회회원의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현실에 맞게 개정.
- 회기수당 일 70,000원을 일 100,000원으로 함

■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 정비.

-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변 경 전	변 경 후
결 혼	본 인	7	7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0
출 산	배우자	3	3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	5
사 망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변경전: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5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2

※회갑 및 탈상: 변경전 1~5일 → 변경후 0일

■ 서울특별시금천구지역사회복지협의회운영조례안 : 원안가결

- ◆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 4 규정에 의거 복지 · 보건 분야의 민 · 관
대표자, 실무자들이 협력하여 기능적 통합을 통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

■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이 2005. 3. 1일부터 공포 시행됨에 따라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을 원활히 지원 하고자 특별법 제7조제2항 및 부칙 제5조에서 규정한 도로점용료에 대한 감면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개정.

제99회 임시회 (2005. 9. 26 ~ 9. 30)

■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 : 원안채택(부대조건)

- ◆ 금천구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시흥사거리, 시흥역, 군부대주변)을 서남권의 거점도시로써의 위상에 맞는 금천구심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존의 준공업지역을 토지이용계획에 부합하는 용도지역으로 조정.
- ◆ 금천구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변경)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m ²)			구 성 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636,393	-	636,393	100.0
주거지역	소 계	47,177	증) 286,638	333,815	52.6
	일 반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증) 35,000	35,000	5.5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4,291	0.7
		제2종일반주거지역	감) 6,751	2,937	0.5
		제3종일반주거지역	증) 123,499	149,281	23.5
	준 주 기 지 역	7,416	증) 134,890	142,306	22.4
상업지역	일 반 상 업 지 역	67,778	-	67,778	10.5
공업지역	준 공 업 지 역	521,438	감) 286,638	234,800	36.9

주) 금천구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군부대부지 특별계획구역의 용도지역 변경은 세부개발계획수립시 결정



○ 독산동 만수천 습지형 생태연못 조성공사 현장

■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주민자치위원회의 당연직 고문이 되는 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의원직의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문직에서 해촉할 수 있도록 한 조례 제20조의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의 조문 내용 중 그 표현의 내용과 순서 등이 입법형식에 부적정한 부분을 정정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정비 · 보완.

■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회의원의의정활동비 · 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2005.8.5. 공포 · 시행된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우리구 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을 인상 조정하여 회기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2005.8.5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부칙을 규정하여 2005.9.9. 공포하였으나, 개정내용의 공포일 전 소급적용에 대하여 법률불소급원칙의 위배 등을 이유로 행정자치부와 서울특별시로부터 재개정 권고가 있으므로 조례 부칙의 소급적용 규정 삭제.

제100회 임시회 (2005. 10. 28 ~ 11. 1)



■ 서울특별시금천구장학기금조성및관리운용조례안 : 원안가결

- ◆ 지역사회발전과 나아가 지식 정보화 · 세계화시대에 국가를 이끌어 나갈 우수한 인재발굴과 양성을 통해 금천구 지식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재단법인 금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 · 출연하여 지역내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수학이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 지급.

■ 서울특별시금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 수정의결

- ◆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단지내 보안등, 도로 · 하수도, 조정시설 등의 공용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 지원대상의 결정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주택법 제43조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등에 근거하여, 도로 · 하수도 · 어린이놀이터 · 경로당 등 공용시설 부분의 유지관리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 관련근거 : 주택법 제43조제8항(2003.5.29공포, 2003.11.30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1회 정례회 (2005. 11. 25 ~ 12. 16)

■ 서울특별시금천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원안가결

- ◆ 금천의제21의 적극적 실천을 위해 각계각층의 고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환경기본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금천구환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정.

■ 서울특별시금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004.12.23) 및 동법 시행령(2005.06.23)이 개정되어 시·도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법령에서 자치구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각종 불법·허용외광물로 인한 생활민원 등을 예방하고 구민의 생활환경 및 도시경관 보호.

■ 서울특별시금천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비급여대상인 항말라리아 약제의 예방적 투여를 위한 진료 및 처방전 교부 시 진료비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동 조례와 관련된 관계법령의 폐지, 제정 후 미정비 된 사항 등 정비.

■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

- ◆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05. 12. 31까지 되어있으나,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산적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변경후 : 2004. 9. 10 ~ 2006. 6. 30 (연장)

■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

- ◆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2005. 12. 31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수도권광역전철『신 안산선』조기착공 대책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변경후 : 2004. 11. 25 ~ 2006. 2. 28 (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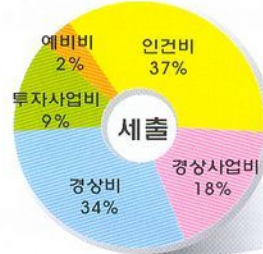
● 시흥계곡 정비사업 현장활동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

2006년도 우리구 살림인 예산안을 다루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05년 12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개최되었다. 위원장으로는 윤장중의원(시흥본동),이 선출되었으며 부위원장에는 김훈(시흥5동)이 위원으로는 안영식(가산동), 장창식(독산1동), 박준식(독산3동), 정병재(독산4동), 유은무(독산본동), 김대영(시흥1동), 장순노(시흥2동), 박만선(시흥3동), 오길환(시흥4동)의원 11명으로 구성하였다. 이번 예산안의 편성과 방향을 보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 당해연도에 필요한 행사성, 소모성 경비, 업무추진비 등 불필요한 경상비를 최대한 긴축반영 하였으며, 주민복지사업은 증액, 투자사업비는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계속사업은 공사시기 조정 등 필요 예산만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다.

예산규모 - 1,524억원 (2005년 대비 2.4% 증가)

- 일반회계 : 1,452억원(재정자립도 32.9%)
- 특별회계 : 72억원 (의료급여 1.5, 주민소득 3, 주차장 67.5) ※ 기금 - 271억원 (구 청사건립기금 외 12개 기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 활동

금천구의회 제91회 임시회 개회 중 타구보다도 열악한 재정기반조성 및 낙후된 지역발전의 터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디지털 산업2·3단지를 국가산업단지에서 해제하고자 우리 의원들의 의견일치로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김대영(시흥1동)의원을 선임하였으며, 부위원장에는 안영식(가산동)의원이 위원으로는 장창식(독산1동), 박준식(독산3동), 정병제(독산4동), 유은무(독산본동), 장순노(시흥2동), 박만선(시흥3동), 오길환(시흥4동), 김 훈(시흥5동), 윤장중(시흥본동)의원 11명으로 구성하였으나, 2005년 12월 15일 제7차 본 위원회에서는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에 따른 원활한 사업추진과 산적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이 불가피하여 3회에 걸쳐 기간연장으로 2006년 6월 30일까지 연장기로 의결하였음.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23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기본계획과 관련한 토론회 시민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해 반대의사 표명과 국회정문 앞에서 산업단지 해제 1인 시위를 하였으며, 2005년 8월 30일 국무총리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산업단지규제개선방안”으로 산업단지 해제가 가능하도록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향후 본 위원회에서는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산업단지해제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쳐 나갈 것임.



수도권 광역전철『신안산선』 조기착공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금천구의회 제93회 정례회중 수도권 광역전철 신안산선 조기착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윤장중(시흥본동)의원을 선임하였으며, 부위원장에는 박만선(시흥3동)의원이 위원으로는 안영식(가산동), 장창식(독산1동), 박준식(독산3동), 정병재(독산4동), 유은무(독산본동), 김대영(시흥1동), 장순노(시흥2동), 오길환(시흥4동), 김훈(시흥5동)의원 11명으로 구성되어 당초,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두차례에 걸쳐 연장하면서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나, 『신안산선』조기착공대책에 따른 원활한 사업추진과 산적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이 불가피하여 2006년 2월 28일까지 연장기로 의결하였음.

■ 사업 개요

- 구 간 : 안산 ~ 광명역 ~ 시흥대로 ~ 여의도 ~ 청량리/40.8km
- 사업기간 : 2015년까지 단계별 완공
- 총사업비 : 3조 9천 219억원 - 건설교통부(국비 75%, 지방비 25%)
 - └ 1단계 - 안 산 ~ 광명역 ~ 여의도/26.6km/19,775억원 - 2012년 완공
 - └ 2단계 - 여의도 ~ 서울역 ~ 청량리/14.2km/19,444억원 - 2015년 완공



■ 신안산선 추진상황

- 2001. 12. : 수도권 광역교통망 신안산선 건설계획 발표(건설교통부)
- 2003 ~ 2004 : 고속철도 대비 조기건설 협의(금천구 · 금천구의회-서울시, 건설교통부)
- 2004. 11. : 금천구의회 '신안산선 조기착공 특별위원회' 조기 건설 청원
(금천구의회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5. 5. : 교통난 해소와 고속철도 광명역 활성화를 위해 조기추진 발표(건설교통부)
- 2005. 12. 30. : 신안산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조사설계비 32억원 확정

수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수해는 예견할 수 없는 재난이라고 하지만 피해원인을 분석하여 사전에 면밀한 점검과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 수해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활동을 통하여 근원적이고 현실적인 수해대책을 강구하고자 2005년 5월3일 금천구 수해현장 및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유은무(독산본동)의

원을 선임하였으며, 부위원장에는 박만선(시흥3동)의원이, 위원으로는 안영식(가산동), 장창식(독산1동), 박준식(독산3동), 정병계(독산4동), 김대영(시흥1동), 장순노(시흥2동), 오길환(시흥4동), 김훈(시흥5동), 윤장중(시흥본동)의원 11명으로 구성되어 10월 15일까지 현장활동을 펼쳤다.

▶ 현장활동 - 제98회 임시회

- ◎ 박미(시흥2)빗물펌프장 시설공사장(시흥3동 981번지)
- ◎ 독산빗물펌프장(독산1동 700번지)
- ◎ 시흥본동광장 조성공사장(시흥본동 893번지의 38필지)



◎ 시흥본동 다목적광장 조성 공사장 (2005. 8. 26)

금년 총 강우량은 10월 15일 기준 1,145mm로서 작년 1,011mm보다 많은 비가 내렸고, 지역에 따라 편차가 심한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발생하였으며, 금년 9월 13일 우리 금천구에는 시간당 최대강수량 45mm의 집중호우가 발생하였지만 재해사전대비 등 적극적인 수해 예방활동으로 침수피해 없이 우기를 극복할 수 있었음.

금년의 경우와 같이 최근의 자연재해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다양화·대형화·국지화 추세에 있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예방대책만이 피해를 최소화하여 주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에만 재해(수해)에 치중하지 말고 연중 상시적으로 기능별 재해 취약 부분을 점검하여 언제 어느 때 자연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하겠음. 이번 금천구 수해대책특별위원회에



◎ 수해대책특별위원회 현장활동

서는 저지대, 대형 건축 공사장, 빗물펌프장, 비탈이 있는 녹지대 등 수해 취약지대를 중심으로 수해 활동을 펼쳤으며, 주요 공사장은 여러번 방문 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수해 시 물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적치물, 공사 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제로화하기 위한 지적과 저지대 주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과 수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시 종사하는 직원의 복지에까지 신경을 쓰는 등 전반적으로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였음.

앞으로 집행부는 재해대책본부를 철저히 운영해야 할 것이며, 현장활동 결과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자연 재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곳을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함으로써 사전에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재산보호 및 인명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할 것임.



구청질문 및 답변

2005년 하반기(제98회 임시회 ~ 제101회 정례회)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구청의 행정시책의 집행과 새로운 계획 등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였다.



안 영 식 의원
(가산동)

Q 교육보조금(교육경비지원보조금) 증액지원 계획은?

A 학교교육경비지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및 서울특별시금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2003년부터 금년까지 연차별 약 40%증액, 총9억2천만원을 예산편성하여 각급학교에 8억5천여만원을 지원하였음.

2005년도는 학교교육경비보조금으로 5억을 예산편성하여 학교 급식시설 설비 및 환경 개선사업 등 48개학교(유치원포함)에 445,897천원을 지원하였음.

특히 학생들의 외국어 수준 향상과 영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원어민영어교실”을 시범운영 하여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과 교육의 질향상에 기여하였음.

2006년도에는 학교교육경비보조금으로 2005년 대비 44% 증가한 7억2천만원을 예산편성하여 지원 하고자 하며, 앞으로도 “원어민 영어교실” 등의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의 폭을 확대할 계획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이 열망하는 최우수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음.

Q 학교운동장 공원과 사업계획 및 주차장화 추진상황은?

A 학교운동장 주변을 공원으로하여 공원시설이 부족한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고 학생들의 정서 순화에 기여 하고자 하는 사업(사비지원)으로 우리구에서는 2004년도 시흥1동 문일고등학교에 소나무등 8,600주를 식재하고 조경석 등 6종의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 및 학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사업비 1억4천만원으로 시흥초등학교에 자귀나무 등 16종 2,800주와 그늘막 등 10 여점의 공원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2006년에는 독산1동 안천중학교를 학교공원화 사업대상자로 서울시에 추천하여 서울시에서 학교공원화사업 대상지로 심사 중에 있음.

학교운동장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은 우선 주차난이 심한 지역에 위치한 세일중학교, 문성초등학교, 시흥초등학교 등 3개 학교를 대상으로 2005. 6. 15 도화종합기술공사와 계약체결하여 (2005.6.24 ~ 12. 20) 현재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 용역중에 있음.

용역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12월중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해당동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보고회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 서울시 투·융자 심사를 경유 추진할 계획임.



장 창 식 의원
(독산1동)

Q 협진사거리 우시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악취가 심하여 인근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으므로 철저한 점검과 소독으로 위생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바람.

A 우시장 주변의 악취는 도축장 및 주변에 산재한 부산물 가게 등 소매점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 두가지로 분류되고 있으며, 도축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중 폐수는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으며, 악취는 자동 탈취살포기 12개소를 설치하여 24시간 가동함으로써 악취발생을 억제하고 있음.

또한 주변지역의 정육점과 부산물가게 등 소매점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환경보전법상 비규제시설에 해당하나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감안하여 부산물가게 입주자대표 회의를 개최하여 부산물을 옥외로 이송시 침출수가 도로에 유출되어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계도하고 독산1동 우시장 주변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악취발생 원인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였음.

Q 우리구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군부대 이전에 대한 시기와 향후 계획은?

A 군부대 이전과 관련하여 2004년도에 국방부관계관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당시 국방부 관계자는 부대이전에 대해 작전 환경변화에 따른 부대운영을 고려하여 부대가 이전되기까지는 약 2~3년 정도 소요된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또한 군부대부지 개발계획인 구심지구단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2005. 9월이후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와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용도지역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요청한 바 있음. 오는 12월 12일 시의회 의견청취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용도지역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토록 하겠음.



박 준 식 의원
(독산3동)

Q 독산동 20m 도로변 2~3층의 낡은 건물(30년이상)을 재건축하여 상업지역으로 전환할 용의는?

A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기준에 의하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상업기능을 할 수 있는 지역중심, 지구중심 등 지역여건에 부합되어야만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함. 독산동 20m 도로변에는 문성·정심생활권중심과 상가건물 등이 입지하고 있으나, 서울시 도시공간구조의 중심지 체계상 최하위 지역인 생활권중심에 해당되어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나, 우리구에서는 현재 용역 시행중인 문성생활권중심 재정비 계획에 따라 남부순환도로 주변 일부지역은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하여 지역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

Q 서울시 예산으로 확정된 관악구 난곡에서 신대방역까지의 경전철 건설을 독산동 20m 도로를 거쳐 벽산아파트까지 또는 석수역까지 연장 추진할 계획은?(신대방역 ~ 독산동 20m도로 ~ 시흥동 벽산아파트·석수역)

A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에 난곡지역 경전철을 우리구까지 연장시켜 달라고 요청하여, 서울시로부터 현재 진행중인 난곡 경전철 기본계획 설계용역에 노선연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으며, 지난 10월13일에는 서울시 교통계획과와 경전철 기본계획수립 용역사인 벽산엔지니어링 철도구조사업부를 방문하여 우리구의 연장노선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음. 경전철 건설사업은 주무관청인 서울시의 도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구자체 추진은 법적 분쟁등의 소지가 있으므로 지양하라는 서울시의 요청이 있어 우리구에서는 시 관계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음. 또한 독산동 20m 도로를 경유하는 경전철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역점적으로 시행중에 있는 금천 구도시종합관리계획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와 협의하고 있음.



정 병 재 의원
(독산4동)



Q 동서간 도로와 관련하여 난곡에서 이어지는 문성골길에 도로는 20m도로에서 끊겨서 50m도로까지 교통망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문성골 주변에는 학교가 많이 있으므로 학생들의 정서에 적합한 청소년쉼터라든가 문화공간 조성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

A 독산동지역(문성생활권)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독산동길 20m에서 시흥대로로 연결하는 동서간 도로 개설과, 군부대가 이전되고 나면 이전부지에서 남부여성발전센터를 거쳐 난곡까지 동서간 연결 도로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는 도시종합관리방안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으며, 또한 독산2동, 독산4동 학교 밀집지역에 청소년 휴게공간 확충에 대하여 도시종합관리방안에 반영했으며, 특히 한울·문성중학교, 난곡·영남초학교 일대를 청소년 문화거리로 조성하여 청소년광장, 분수대, 벤치, 길거리농구장 등을 조성토록 하겠음.

Q 독산지역의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한 계획은 ?

A 독산동 917-6번지와3필지는 현 독산4동 경로당 및 대한노인회금천구지회가 위치한 지역으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관련사항을 검토 한 바, 토지면적은 403평이며 그중 시유지가 230평 구소유 부지가 173평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을 지을 경우, 도로와 공원면적 119평 정도를 제외하면 실제 활용 가능한 면적은 284평 정도로 종합복지관으로서는 협소하고 여기에 노인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시유지 230평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총 40억8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며, 1구에 1개소의 노인종합복지관 지원정책에 의해 또하나의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하여는 건립·운영비 전액을 구비로 충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구정업무보고시에 노인종합복지관 대신 금천노인회관으로 건립하여 어르신들의 여가선용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조율은 되었으나 내년도 신규예산 편성이 억제된 지침에 의거 편성은 못했습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음.



유 은 무 의원
(독산본동)



Q 서울시 도심교통개선사업중 시흥대로 구간에 중앙차로 사업에 대하여 정류장 위치 선정등 민원에 대비하는 사전 업무 협조체제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A 시흥대로에 시행중인 시흥~한강로축 중앙버스전용차로 공사는 서울시 도심교통개선반에서 사업계획을 수립, 설계를 완료한 후, 공사는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2월말 개통 예정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사전업무협조 체제의 과정은 서울시 도심 교통개선반에서 대중교통우선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주요간선도로 16개축, 191km구간에 중앙버스전용차로 노선 도입계획을 수립하여, 전문 엔지니어링사에 의뢰, 설계도를 작성한 후 서울경찰청의 교통규제 심의(교통안전, 교통소통 등)를 거쳐 서울시에서 확정하며, 우리구에서는 중앙버스전용차로 공사와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건설안전본부, 정류장 위치 등 노선과 관련된 민원사항은 서울시 도심교통개선반에 전달하여 처리하고 있음.

Q 일반주택, 점포건물의 주차장 불법사용 견수와 조치사항은 ?

A 우리구에서는 주차장법제19조의4 제1항에 의거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본래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일제조사를 실시, 목적외 사용되고 있는 위법 부설주차장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있으며, 2004년도 독산지역, 2005년도 시흥지역의 부설주차장을 일제히 점검하여 전체주차장 3,637개소 중 위반된 주차장 671개소에 대하여 시정 요구하였으며, 그 중 380개 주차장은 시정이 완료 되었으며, 나머지 291개 주차장은 현재 시정 조치중에 있음.



김 대 영 의원
(시흥1동)



Q 시흥역에서 기아대교간 도로개설에 대한 추진사항은?

A 시흥역~기아대교간 도로개설공사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시흥대로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시흥대로 우회도로 기능을 강화하여 교통량을 분산처리하고자, 현재 가산디지털역에서 시흥역 까지만 개설된 벚꽃십리길을 연장하여 기아대교까지 연장 1,590m를 개설하는 사업이며, 우리구에서는 본 사업의 투자효과 증대를 위해 우선 시흥대로 까르프에서 시흥빛물품포장까지 약 590m를 2002년 확장 개통 하였으나, 최근 우리구 숙원사업인 구청사 착공, (주)대한전선 및 군부대 이전부지에 대한 구심지구 단위계획 수립 등 시흥역 주변의 개발계획 추진으로 교통여건 변경이 예상되어 도로 규모의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심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여 도로 폭원 등 사업 규모를 결정 추진토록 하겠음.

Q 공동주택내 공용시설에 한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근거를 마련할 용의는?

A 우리구에서는 저소득층 주민이 거주하는 독산1동 주공13단지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 2004. 7.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구임대아파트시설물관리비용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2004년도 9월부터 4개월간 공동전기료 1,2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5년도에는 4,8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임. 현재 서울시의 양천, 강서구 등에서 2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지원내용은 도로 및 보안등 보수, 하수도준설 및 보수, 조경시설·어린이놀이터·경로당등의 보수,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등임.

우리구는 타구보다 상대적으로 저소득 서민이 단독·다세대주택에 많이 거주하고 있어 현재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 일반 아파트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재정 여건 등이 나아진다면 조례제정과 지원예산 확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장 순 노 의원
(시흥2동)



Q 경전철을 도입하는 방안 하나, 관악구 경전철 종점인 신림7동 난향초등학교에 노선을 연장하여 시흥2동 벽산아파트를 종점으로 하여 경전철을 연장운행하는 방안 둘, 관악구 신림7동 경전철 종점에서 노선을 연장 하여 금천구 시흥2동, 시흥5동, 시흥3동을 경유하여 국철 석수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A 서울시에 난곡지역 경전철을 우리구까지 연장시켜 달라고 요청하여, 서울시로부터 현재 진행중인 난곡 경전철 기본계획 설계용역에 노선연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회신이 있었으며, 지난 10월 13일은 서울시 교통계획과와 경전철 기본계획수립 용역사인 벽산엔지니어링 철도구조사업부를 방문하여 우리구의 연장노선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아울러 우리구에서 역접적으로 시행중에 있는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있으며, 경전철 건설사업은 주무관청인 서울시의 도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구 자체추진은 민간투자법, 도시철도법등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지양하라는 서울시의 공문 요청도 있어 우리구에서는 시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건의해 나갈 계획임.

Q 산복도로가 지나가는 벽산아파트 5단지의 상단구간에 방음벽 설치를 할 계획은?

A 호암길은 제2경인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로 접근성이 용이하여 차량 통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서 우리구에서는 과속차량에 의한 소음저감대책의 일환으로 경찰청에 요청하여 단속 카메라를 2005년 11월에 설치한 한바 있으며, 방음벽 설치에 관하여는 수차례 서울시에 건의한 결과, 현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상태로써 검토 결과에 따라 방음벽 설치 가능하리라 여겨짐.



박 만 선 의원
(시흥3동)



Q 시흥3동 937번지일대 도시공원 조성과 문화회관 건립 추진 현황은?

A 폭포근린공원은 2005.11.17.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 고시되어 현재 공원조성계획 입안을 위한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음.

도시공원과 문화회관 1,465평, 사업비는 총 196억원으로 11월 현재 시비 70억원과 구비 23억원을 포함하여 총 93억원이 확보된 상태이며, 향후 2006년 초에 서울시에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요청할 계획이며 2006. 4월부터는 보상에 착수하여 2007년에 공원조성 공사를 시행할 예정임.

Q 시흥3동 957번지 10호, 12호에 현대화된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여 노인 대학, 휴식처 및 어려운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은?

A 상기 대지는 국유지(재정경제부)로서 2필지 510.5㎡(154.7평)이며, 부지현황 및 토지이용계획을 검토한 바,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대학 등 노인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라고 판단됨. 부지내에는 무허가 건물주(이종영)가 장기간(20년 이상)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소유주가 우리구청과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중에 있으므로, 토지매입을 위해서는 무허가 건물주에게 고가의 보상을 해주어야 협의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유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경제부에 협의 매입을 요청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협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도시계획구역 결정에 의한 토지매입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관련사항을 적극 검토하겠음.



오 길 환 부의장
(시흥4동)



Q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옥탑방 등이 양성화 될 수 있는지?

A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05. 11. 8 일자 공포 제정되었으며 2006.2.9~2007. 2. 8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여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는 것으로서 이법이 시행되면 시민의 재산권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양성화를 위한 적용대상 건축물로는 2003. 12. 31 이전에 사실상 완공되어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용중인 주거용 건축물로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 이하, 단독주택은 165㎡ 이하, 다가구주택은 330㎡ 이하가 대상이며, 특정건축물의 양성화 정리기준으로는 대지가 3m이상 도로에 2m이상 접해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안전, 위생, 방화 및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로 양성화 될 수 있음.

Q 시흥2동 범일운수 종점 주변으로부터 호암사 입구까지 약 500m 도로에 겨울철 차량과 행인의 미끄럼방지를 위해 열선(스노우 멜팅)시스템을 갖출 계획은?

A 스노우멜팅시스템 제설 방식은 주로 지하 주차장 출입구, 터널 진출입입구, 교량 인터체인지, 비행장 활주로 등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기존 도로인 금천로에는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 관리와 향후 도로 포장 정비 등 유지관리상의 문제점 등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제설시 우리구에서는 급경사지인 범일운수에서 호암길 입구까지를 취약지점으로 정하여 중점관리하고 있으며, 강설시 최우선적으로 장비 및 인원을 투입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있음.



김 훈 의원
(시흥5동)



Q 독산동길 20미터 도로변의 수목을 과실류나 은행나무 등으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는 대다수 주민의 의견이 수년동안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기대책은?

A 우리구에는 25개노선에 약 6,600여 주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으며, 이중 버즘나무가 약 1,300주로 우리구 전체 가로수의 약 20%(서울시 전체 37%)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수종임. 버즘나무는 가로수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식재되어 있는 수종으로써 공해가 심한 서울에서는 대기오염 물질과 미세먼지 흡수능력이 가장 뛰어난 여름철 녹음수이며, 공해방지 수목으로서도 가장 가장 적합함. 향후 도로 확장 및 신규 식재 시에는 주민들의 선호하는 과실류나 은행나무를 심도록 할 계획임.

Q 시흥5동 건영아파트 후문~우방아파트간 별장산 우회도로의 인도가 일부 설치되어 보행자들로부터 교통안전에 대한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건영아파트~정삼품묘까지의 인도 설치는 언제쯤 계획하고 있는지?

A 시흥5동 건영아파트 ~ 정삼품묘까지 보도 설치시 교통안전과 보행자 편의등 장점이 있으나, 시흥계곡 도로에 설치된 주차구획 100여면이 삭제되어 주택가내 주차환경이 더욱 열악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시흥5동 공영주차장 완공예정시기를 고려하여 주차구획 삭제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타당성 여부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견 수렴과 관할경찰서와의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보도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음.



윤 장 중 의원
(시흥본동)



Q 현재 장애우 단체가 여러 단체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지원할 계획은?

A 현재 우리구에는 6개의 장애인단체가 있으며, 장애인의 사회통합 차원에서 6개 단체가 연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지만 각 단체의 이질성과 목적사업이 다르고, 각 단체별로 장애인 대표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연합회 구성의 어려움이 있음.
금년도 6개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총액은 13,200천원이며 단체별 사업 내용에 따라 2백만원~3백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장애인복지사업에 부합하는 사업과 복지증진에 뚜렷한 활동이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음.

Q 2005년도 옥외광고물 중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과 향후 정비계획은?

A 옥외광고물 중 불법고정식광고물 정비실적은 2005.11월 말 기준으로 가로간판 450건, 돌출간판 285건, 세로간판 1,409건, 지주간판 18건 창문이용간판 1,122건 등 총 3,284건을 정비하였으며 이행강제금은 223건에 1억 9백만원원을 부과하였음.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실적은 입간판 780건, 현수막 6,500건, 벽보 95,000건, 전단 154,000건 총 256,000건을 정비하였으며 과태료 603건에 1억8백만원원을 부과 하였음.

향후 연말을 맞이하여 대형유흥업소에서 담장등에 불법광고물을 다량 부착하고 있어 청소년의 유해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함에 따라 부착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 과태료 부과 조치하고, 음란 퇴폐적인 선전광고물은 과태료부과와 병행하여 고발 조치토록 하겠음.



◆ 금천구의회 의정도우미 간담회 2005.11.29

주민들의 생생한 여론과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의견을 파악하고
그 해결 방안 강구



◆ 청소년독서실 및 정보도서관 기공식 2005.11.21

금천구 가산동 두산아파트 옆 235번지 3호에 위치한
이 건물은 연면적 2,310㎡의 지하1층, 지상6층으로 2006년 11월경 개관 예정



◆ 금천구청사건립기공식 2005. 11. 29

금천구에서는 청사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여러 내빈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거행



◆ 서울특별시 구의회의장 협의회 2005. 11. 22

금천구회의장 명예학박사학위 수여 ㉠
2005.11.15

이종학 의장이 중국 동북사범대학 경제대학원
으로부터 명예 경제학박사 학위 수여, 양국간의
지속적인 문화교류 진행



㉡ 장애인과 함께하는 소박한 외출 (서울랜드)
2005.10.13

사랑실천운동의 일환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관내 장애아동 및 장애청소년 12명과
의원들은 눈높이 대화와 함께 소외된 계층인 장애인
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
할 예정



㉢ 의정도우미 간담회 2005.10.06

2006년도 구정에 반영할 예산사업"에
대한 의견 청취와 서울의 숲 현장 방문.



제4대 금천구의회 개원3주년 기념식 ❶
2005.07.06

새로운 시대의 요구와 변화의 물결 속에 출범한
제4대 금천구의회 개원 3주년 기념식



❷ 금천구 독산4동청사 기공식 2005.07.15



❸ 금천구의회의원 세미나 2005.10.18



2006년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정보 습득을 위한 의원 세미나 개최

의정활동 포토 갤러리



한마음 축구대회 2005.07.23

독산동 근린공원에서 금천구 축구연합회 소속인 여성 축구단과 친선을 도모하는 한마음 축구대회(독산근린공원내 잔디구장 건립추진중)



2005. 을지훈련참관 (남부경찰서) 2005.08.23

금천구의회 의원들은 실제훈련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둔 "2005 을지훈련" 참관



● 금천구 한내 구민 휴식공사 준공식 2005.09.22

구민의 쉼터로 활용될 「금천구 한내 구민 휴식공사 준공식」에 참여, 금천구민 모두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도심속의 휴식 공간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야 한다는데 동의 하고 금천구의회가 앞장서서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다짐



2005년도 금천구상공회 정기총회 및 창립2주년 기념식

2005년 7월 22일 17:00~20:00 노보텔 신라홀



● 금천구 상공회의소 창립2주년 기념식 2005. 07. 22

관내 노보텔에서 가진 「금천구 상공회의소 창립2주년 기념식」에 참석 축하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금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밝힘.



한가위 불우시설 방문 2005. 09. 13

외롭고 소외되기 쉬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작은 행사
금천구의회 의원들은 중추절을 맞이하여 금천구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수용시설을 방문하여 격려품을 전달하고 불우노인과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는 시설현장 활동



나라사랑 구국기도회 2005. 09. 15

구의회 의원들은 노보텔에서 금천구 교구 협의회가 주관한 나라사랑 구국 기도회에 참석
광복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나라의 발전을 염원함.



◆ 제98회 임시회 독산동 우시장 현장 활동 2005. 08. 29

금천구의회 의원 12명 전원은 독산동 도축장을 방문하여 오·폐수 처리현황과 도축시설을 점검하는 모습



◆ 지방의회 비교 견학 및 안보시찰
(강원도 철원군 의회) 2005. 08. 31 ~ 9. 2

타시도의회의 특징적이고 발전적인 의회 운영 사항을 벤치마킹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정보 교환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철의 삼각지와 제2땅굴 견학



언론으로 본 의정활동 소식

금천구의회 의정도우미 간담회

전국매일 2005/12/01



금문구의회(의장 이종학)는 지난 29일 의정도우미 36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윤 한혜동안 대표 도우미들의 활동상을 점검하고 내년도 계획에 대한 토론을 나눴다. 이종학 의장은 “의정도우미들이말로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초석이 됐다”며 “지난 1년간의 활동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 도우미들은 주민들의 생활한 여론과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의견을 파악하고 그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취지로 지난 2003년 3월부터 운영돼 왔다.

금천뉴스 2005/11/14

[금주의 인물] 시민일보 제3회 행정·의정대상

작영호 시의원 윤장중 구의원 의정대상 수상



우리구 장영호 서용시의원(사
진 좌)과 윤장훈 구의원이 시민
일보가 주는 제3회 행정·의정
대상에 관여의원부인과 기초의
원부로서 각각 수상자로 선정돼,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시상식
을 가졌다.

연장 의원은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할 것이라고 해와 의료를 통해 사회 발전과 함께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시행 및 의정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자 명단에 올랐다.

장 의원은 동료 시의원들과 함께 청년의 11개 분야와 50가지의 힘으로 청소년을 바르게 성장할

최신안산선조가학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신안산선이 가학공필수 있도록 관계자들과 수많은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구성 및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등 지역 경제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바 있다.

특히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돼 있는 새마을문고에 여름이철이 돌아올수록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이북도서도 한때도 판단해 신안산천 공사와 연계한 대량업장과 시흥연립 주변을 대단위아파트 단지화 하고 동 새마을문고 봉사자의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주는 봉사활동인정시스템등을 운영,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취직의 1150만
정착캠페인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이 캠페인이 좋은
교과와 일반교과까지 진행돼 서
클에서 청정특별시로 전환된
아이 선두주자가 되도록 앞장설
수 있게 했다는 공로다.

유종중 의원은 주민 복지 향상
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
고 있겠다며 더 나아가 지역 전체가
다함께 잘 사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
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유 의원은 수도권광역정

시민인물 관계는 "행정·의정대상은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서 평소 각 분야에서 자기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이들을 발굴 육성해 공직을 널리 알리자는 취지로 제정한 상으로, 주민 및 공무원들의 추천을 받아 교수 시민 단체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에 한번 수상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행정과 의정대상을 포함 총 71명이 수상했다. 이경진 기자

금천신문 2005/11/30

시

친화경은 우리의 마음가짐

가로수 길을 찬란하게 수놓았던 노란
행잉이 초겨울로 접어들자 입체해 멀어
길거리는 온통 은하일 세상으로 변했
행잉들은 온전하고 좋아할지 모르나
경미화되어가는 그야말로 골치덩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꼭꼭 행잉을 눈길
아랑곳 않은 채 비탈에 연별 엮는 모습
나도 직업의식보다는 어떤 사람같이나
올까하는 더욱 앞서 부신다.



정병재 의장

21세기 글로벌 환경의 변화

몇 일전, 어느 모임에서 쓰레기 무단
기각속 CCTV 카메라가 180°로 회전
영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나왔다. 그즈
쓰레기를 버리고 물레 사바지는 사람들
었다는 것 때문이다.

일반쓰레기 봉투 20리터가 한장에 3
원, 음식물쓰레기 봉투 5리터가 110원
다.

서울시 건축을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 중이라는 소한거울을 씌웁니다.
우리 금천구도 골목형소 상상이 청을 운영하면서 평가대회도 하고 시장

일반가정에서 보통 1장에 3~4일 쓸
있는 양인데, 김갑도 안되는 돈을 위해
한 양심을 버리는 것은 돈보다는 의식구
에 문제가 있는 비정상적인 사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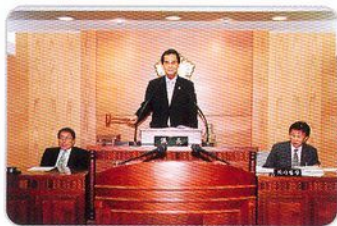
등산로와 빈강봉, 과자봉지, 배낭봉
등 먹을 것과 바벌 등의 양심과 습관을
리 스스르 바꿀때 보자

하지만 지금은 처음 같지는 않은 듯 싶다.
얼마전 하천 생태습지 견학이 있어
한대, 안양천 학의천 등 김천구, 안양
포, 의왕시 등을 살펴보고 있다.
하천 정화과 생태보전·습지조성
환경 정책과 꽤 많은 돈과 기술로
을 맡게 하는 단체들이 강박을 했다.

지난해 쓰러진 무단투기 7만5631건
65억7500만원 과태료, 포상금 11억3400
만원 지급의 환경부 발표나 경기도 S시
K시 등이 내질 앞 둔 치우기 의무화 조처
제정 또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27조 의

그러나 무엇보다 내집안 내 주변의 문제는 내가 스스로 관리하고 내 통소중히 여기고 가꾸겠다는 공동체적 각과 주인의식을 갖는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고 본다.

제100회 임시회 '장학기금조례안' 통과 장학회 설립 근거 마련 금천뉴스 2005-11-14



오길환 부의장
금천구의회의원 (시흥4동)

지난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장학기금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또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은 범위가 확대돼 수정 가결됐다. 지난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열린 100회 임시회에서 △독산2, 3, 본동청사 신축 △독산1동 분소지역의 구립어린이집 및 청소년 독서실 건립 △시흥1동 구립어린이집 및 청소년독서실 △탑골어린이집(시흥2동) 신축 등을 골자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또한 관심을 모았던 장학기금 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단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은 그 대상범위를 확대, 수정 가결됐다.

한편 29일에는 의원 일부가 탑골어린이집을 현장 방문해 둘러봤다.

◇독산2동 등 청사 신축=독산2동과 독산3동 그리고 독산본동의 청사가 새로 지어진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면 3청사 모두 지하1층 지상5층 600여평 규모로 내년6월 부지를 선정해 2007년에 공사를 시작, 다음해 5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모두 다 민원실, 주민자치센터, 문고 회의실이 들어간 복합청사다.

2007년 3월부터 독산1동분소지역 구립어린이집 및 청소년독서실이

신축돼, 원어모집이 이뤄진다. 지하1층 지상2층 200평 규모로 1층에는 어린이집 2층에는 청소년독서실이 지어질 예정이다. 현재 정확한 부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시흥1동에는 구립어린이집과 청소년독서실이 건립된다. 역시 200평 규모에 1층에는 어린이집이 2층에는 청소년 독서실이 들어선다. 완공은 2007년 초, 건립된지 30년이 넘는 구립 탑골어린이집(시흥2동)도 아동 안전과 보육서비스 향상을 지하1층과 지상3층(연면적 180평)규모로 새롭게 지어진다. 기존 건물 열 70여평정도를 흡수해 신축된다. 역시 완공 2007년 초 예정이다.

◇'장학기금 조례안'=구민의 주목을 받았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 조례안(이하 장학기금 조례안)이 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로써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수학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단법인' 장학회'의 설립이 용이해 졌다.

구는 내년 5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 재단설립을 위한 최소자금을 마련, 지역 주요인사 및 각계 전문가 등으로 받기인(40-50)을 구성, 장학재단을 설립한다는 복안이다. 구가 기금을 출연하지만 장학재단은 민간에 의해 운영될 예정이다.

1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 박준식 의원은 타 지자체의 장학기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것을 거론하는 한편 "민간기탁자(독자)를 많이 발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조언했다. 구는 40억규모로 기금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동주택 단지 내 보안등의 보수 및 전기료 지원과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조례안은 조례의 적용범위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하는 것과 지원대상에 어린이놀이터·경로당·도로·하수도의 유지 보수를 신설하는 등 확대 됐다.



김대영
금천구의회의원
(시흥1동)

주민의 자발적 구정참여가 지역발전의 구심점으로

금천뉴스 2005-10-06

- 주민의 높아진 의식수준에 맞춘 여건조성 주력
- '타워팰리스' 같은 초고층 빌딩과 녹지공원이 환경친화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 한양아파트 재건축 건물은 주민의 합의하에 진행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 동서 200미터도로 건설과 청소년 독서실, 어린이집을 건립 주민편의 확대

"풀뿌리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지방자치체의 성숙과 더불어 의식변환이 촉구되는 시점입니다. 분구된 후 4대 회의를 맞이하는 금천에도 전문적인 역량과 사명감을 정립시킬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김대영 구의원은 이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구정참여를 주장한다.

구의 현안과 방향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구정을 펼치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시흥1동은 전체의 78%가 공동주택(아파트)으로 구성되어있다. 현재 이 지역은 주택과 공장이 혼재된 준공업 지역으로 묶여있어 이의 신속한 해제로 인한 용도변경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시흥1동을 금천구의 중심지역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며 내년에는 이에 대한 가시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 청사가 들어설 예정인 시흥역 주변일대의 개발이자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 의원은 "대민서비스를 확충시키는 다양한 시설의 종합행정타운 조성과 대한전선이 이전한 지역에 '타워팰리스' 같은 초고층 빌딩과 녹지공원이 환경친화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외에도 동서를 관통하는 20미터도로 건설과 청소년 독서실, 어린이집을 건립하여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현재 건물을 짓고 있는 한양아파트 재건축 건물은 주민의 합의하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만큼 원만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강구중이다. 더불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종 공연과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콘서트장과 체육공원 등의 시설물이 시급하며 주민의 일상생활 향상을 위한 음악회 공연 등은 연중 치러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인양친의 특이 좁은 관계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해 이의 개선을 위한 예산을 준비중"이라고 말하며 자전기 전용도로를 조성해 여가생활에 보탬을 줄 계획이다.

시흥1동은 관내 다른 지역에 비해 생활의 수준이 높은 편이다 보니 자연스레 웰빙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강하면서 자연스레 건강과 체력증진, 문화적인 욕구가 증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주민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도록 항상 커뮤니티 활성화에 주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김의원은 "지방자치체가 올바르게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행정부와 의회, 주민이 함께 손잡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로운 금천의 터전을 닦아나가기 위한 대의에 산분어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과 여건을 제공하고 이의 시너지를 지역발전의 기록제로 삼게 되길 바란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장 순 노
금천구의회의원
(시흥2동)

기초의원원 풀뿌리 민주주의에 의거 공천제도 없어야

금천뉴스 2005-08-08

- 공동주택과 일반주택 주민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을 만들어 낼 것
- 내년 3월에는 150여평 정도의 규모로 '구립 어린이집' 건립을 추진
- 산업2단지 지역은 복합의류산업업 정착시킬 수 있는 관련업종과 기업의 유입이 가속화 되어야 제대로 된 모양새를 갖추 수 있어
- 경전철 공사에 대비 벅산아파트로 노선을 유치하기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
- 거창한 구상보다는 주민과 밀착하는 현실적인 의정이 중요
- 임기내 역점사업도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 혜택에 매진

40여년전 시흥동에 정착하여 지역도박이로서의 뿌리를 내려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장순노 의원. 그에게 있어 지역민과의 교류와 유대관계 부분은 큰 장점으로 손꼽힌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대소사로 인해 자연스런 공감대가 형성되어있음은 물론, 인간적인 친분관계는 그가 의정활동을 이끌어 가는데 큰 힘으로 작용한다. 늦은 감은 있지만 초선의원으로서 당시 감회를 묻는 말에 "유연 선거에는 이것이나 금권선거에는 졌습니다."

상대 입후보자의 금전적인 몰락작전에 크게 곤욕을 치렀다는 얘기가. 사실 장의원은 예전 대기업에 근무했지만 회사사정으로 퇴직 후에는 '가족의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사업을 했었다. 하지만 동종업계의 공장이 대거 중국으로 이전하고 회사내부에 인사문제로 암초를 만나 현재는 재가를 위해 준비 중에 있다. "지역민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은 그래서 그에게는 더욱 뜻깊은 의미가 담겨있다.

우선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을 정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작년, 4억 가량의 예산을 들여 관악산 공공화장실을 설치할 땐두로 내년 3월에는 150여평 정도의 규모로 '구립 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립독서실은 부지 매입 후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진행에 들어갈 예정이며 공영주차장 설치의 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말까지 1차 보상(총 20억가량)을 끝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느 구의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장의원의 의정활동은 철저히 주민편의에 비중이 실려있다. 단기적으로는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확장공사에 예정 되어있고 무엇보다도 경전철 공사에 대비하여 벅산아파트부근으로 노선을 유치하기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밝힌다. 그리고 시흥2동의 교통난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시점에서 각종 부동산 가격이 침체되어 있지만 저하될 및 경전철 노선이 가시화 되면 이 같은 현미경을 일시에 볼적시킬 수 있다며 지역민에게 인내를 갖고 기다려 주길 당부한다.

상대적으로 시흥2동에는 영세민이 많이 거주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거창한 구상보다는 그들과 밀착하는 현실적인 의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노인복지센터나 여성복지관 건립은 무엇보다 시급한 부분이라고. 임기 내 역점사업도 역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 건립 및 혜택에 많은 신경을 쏟을 것이라 밝힌다. "현재 2단지의 폐선거리가 조성되고는 있지만 기존의 남대문시장과 같은 복합의류산업업을 정착시킬 수 있는 관련업종과 기업의 유입이 가속화 되어야 제대로 된 모양새를 갖추 수 있습니다." 의류업에 종사한 경험자다운 얘기가. "예전과 달리 현재 상권의 중심이 독산거리로 옮겨온 만큼 각종 쇼핑물을 활성화 시키는 등 이 일대의 상권을 확충시키는 일이 시급합니다." 또한 지역의 생활스포츠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있지 못해 주민의 여가 및 건강관리 측면에 흠족치 못하고 있다며 이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현 선거제도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기초의원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의거 공천제도가 없어야 합니다. 어느 누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지역에 대한 사정과 현 문제점을 잘 알고 효율적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더불어 실시간 주민과의 유대를 통해 상황을 맞을 수 있는 대안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하구요, 절대 학연이나 기타 인맥으로 인해 좌우 되서는 안 됩니다."

시흥2동-금천의 역사와 현재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곳으로서 각종 유적지로 인한 지역문화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유서 깊은 곳이지만 최근 대단위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공동주택과 기존 일반주택 주민들 사이에 문화와 정서의 이중적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기도 하다. "향후는 주민 모두가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지역역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구심점과 여건을 만드는 것은 지역개발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장의원의 자신있게 강조하는 마지막 다짐이다.



안 영 식
금천구의회의원 (가산동)

"구로공단2단지 발전 막는 국가산업단지 해제해주오"

서울신문 2005-07-01

서울 금천구의회의원들이 이 지역에 있는 서울 디지털 산업 2단지를 국가공단에서 해제시키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패션타운이 96% 차지해 기능 상실

서울 최대 패션타운으로 부상한 금천구 가산동 일대(서울 디지털산업 2단지)는 아직도 국가산업단지로 묶여 있다. 이곳은 지난 1964년부터 73년까지 10년 남짓 조성된 이후 국가산업단지(구로공단)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특히 2단지 11만 9000여명에는 이미 의류할인매장 및 생산시설 306개가 입주하는 등 패션타운 점유율이 96%에 달해 산업단지로써의 기능을 잃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패션타운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를 해제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구의회의 의원들도 지난해 9월 '서울디지털산업2단지 해제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특위는 구성 직후

'해제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이를 청와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을 비롯한 33개 관련기관에 송부하기도 했다. 또 올해 들어서는 금천구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기 시작했으며, 결국 구의원들이 직접 1인 시위에 나서게 됐다.

●산자부 "첨단 정보기술 단지로 육성하겠다"

금천구 관계자들과 구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산자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산자부 관계자는 "수도권에 공장부지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산업단지 해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지역에 디지털·IT 등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인시위를 펼친 안영식 의원은 "2단지의 경우 국가공단을 해제시켜 지방공단으로 전환시키면 된다."면서 "이 경우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자체가 공단을 운영할 수 있고 세수입도 늘기 때문에 낙후된 금천구의 생활수준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주장했다. 금천구의회의는 특히 활동기한을 이미 6개월 연장해 놓은 상태다. 안영식 의원도 국가공단 해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펼치나갈 계획이다.

안 의원은 "구의 의견이 계속 무시당할 경우 주민을 동원한 집회·시위를 벌이는 것을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가시화가 지역 활성화의 관건

금천뉴스 2005-08-23



김 훈
금천구의회의원
(시흥5동)

- ◆ 도로 정체, 우회도로를 개설 교통난 완화
- ◆ 생활 체육 활성화로 별장산 녹지 공원을 축구장 등 다목적 시설로
- ◆ 김천철노선 벽산아파트로 연결시키는 작업 진행
- ◆ 유통상가 구에서 매입, 물류센터로 조성 바람직

“주거환경개선에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 제적으로 시민형 주거지역으로 밀집되어 있어 개발의 여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김훈 구원의 첫 마디로 나오는 바람직 지역 활성화의 과제이다. 동 전체 가구 중 단독주택 및 연립 비율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중 하위 소득 계층의 주거 밀집지역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의원은 시흥 5동이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를 대략 세 가지로 압축한다. “도로용적율과 공영주차장을 늘리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도로개설 부분을 살펴보면 현재 신림동과 벽산아파트에서 50미터 도로와 시흥4거리로 연결되는 도로가 정체에 심해 우회도로를 개설해 교통난을 완화시킬 계획입니다. 즉 우방아파트에서 건영아파트까지 10미터 도로를 개설하고 정3종 요에서 50미터 도로까지 400미터 가량을 신규로 늘리는 것이죠.”라며 내년 개선을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구와 시가 연계사업으로 진행중인 벽산아파트 2단지에서 남부여성발전센터까지의 10~12미터 폭의 도로공사도 올해까지 보상 문제가 마무리 되면 내년상반기에는 확충에 들어갈 예정이다.

덧붙여 백산초등학교의 인접도로도 학생들의 등하교시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도로에 펜스를 설치해 안전에 단점을 기할 것이며 지역 내 교통목질의 개선 등으로 인한 교통부담도 말씀하게 될 것이라 한다.

“도로는 어느 지역이든 발전과 개발의 초석이 되는 기반사업입니다. 시흥5동의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도로 기반시설부터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다. 현재 주차난으로 인한 심각성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는데 머지않아 확정된 뉴타운 개발지정으로 인해 재건축을 활성화 시키는 등 전체적인 주거환경의 조성이 가시화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입장이다. 임기 내 까지 마무리 할 사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가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삼천리발장빌라’의 경우 완공된지 16년이 지난 안전문제 등으로 인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이 원할 경우 건영아파트와 인근주택을 연계하여 해당지역을 대단위 고층 아파트단지로 조성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라고 밝힌다. 김의원은 생활 체육 분야에 있어서 아쉬움을 토로하며 별장산 녹지공원을 축구장 등 다목적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계획안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있어 언젠가 여건만 된다면 가장 먼저 조성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구청사 입지선정에 있어서는 예전의 독산동 지역이 더욱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한 때 라고 말한다. 더불어 현재 추진중인 김천철노선을 벽산아파트로 연결시키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바람이다. 주민의 편의와 시행사 측의 수익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윈윈전략이라는 개념이다.

시흥5동의 상업지구로의 개편도 시급한 부분인데 시흥2동 우방아파트에서 분동4거리까지의 상업지구를 집행부에 요구중이라 한다. 또한 김 의원은 시흥3동 유통상가를 금천구에서 매입, 물류센터로 조성하여 패션도매센터로의 양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시해안의 관문으로서 지방 교통망과 연계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라는 예기다.

시흥6구는 현재 환경이 많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라 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조형물 설치 등으로 주민여가생활에 더욱 일조할 수 있도록 꾸밀 계획이다. 장애인들의 여행견학을 개선하고 주민여러인임을 더욱 확충할 생각인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구청공무원은 대면서비스 강화에 매진해야 합니다. 특히 그간 계속 요구되어온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완공비지출내역이 빨리 공개되어 투명한 구정의 모습을 보여주어 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격언로 매일 아침 교통정리로 하루를 열며 항상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싶다는 그의 소박한 초심이 변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시계경관지구 해제로 인해 지역개발 탄력 받게 될 것

금천뉴스 2005-08-23



박 만 선
금천구의회의원
(시흥3동)

- 작년 서울시가 선정한 ‘녹색주치마을’ 최우수 지역
- 구민의 생활체육분야에 큰 관심 기울여
- 철제상가의 이전으로 주거중심지역 조성 시급

“시계경관지구 해제로 인한 지역개발이 탄력을 받게 된 것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마치 관내에서 외로이 고립된 땅과 같이 모든 여건자체가 침체되었던 점에 비하면 앞으로는 주민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 일으킬 청사진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매진할 수 있어 오히려 어깨가 더욱 무거워진 느낌입니다.” 박만선 구 의원은 98년도에 한차례 낙진, 지역주민의 냉담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작년 서울시가 선정한 ‘녹색주치마을’ 최우수 지역답게 대상가구 116가구중 80가구가 완료 되었고 앞으로 주차수 급율을 98% 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전국 15개 도시에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모든 기획에서 진행과정이 모범적인 사업으로 평가 받았기 때문이다. “그린과정 사업 실시 초기에 우리지역의 막대한 범죄에 대한 불안감과 갑작스런 개발에 따른 주민의 심적 부담은 구정의 적극적인 보안책과 지역개발을 위한 필연적인 당위성에 대한 꾸준한 설득으로 순차적인 과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시흥3동 주요 사거리 17군데에 CCTV를 설치(금년7월~연말 예정)하여 혹시라도 있을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죠.” 권투로 다져진 다부진 몸매의 박 의원은 예전부터 구민의 생활체육분야에 큰 관심을 기울여 왔다. 자신 스스로가 운동관련 학과를 전공하다보니 건강에 대한 철학이 남다르다고 자연스레 주민에 대한 체육시설물 조성에 앞장서게 된 것이다. 작년 7월부터 금산초등학교에서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주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재조성’

을 운영하고 있고 탁구교실 및 어린이 및 여성축구교실을 열어 지역 체육진흥에 일조 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구 전체로 확산시켜 건강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체육행정에 전문가를 영입하여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해야 합니다. 덧붙여 체육장구품 제도를 만들어 스포츠 품나루를 키워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동청사 1층에 체육단련장을 마련하여 주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인데 대략 200~300여명정도가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한다. 시흥3동은 기초생활 수급자의 수가 12개동에서 가장 적은 수주인데 이는 전반적으로 지역의 생활수준이 향상된 결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밖에 보안등 시설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고 약수터의 수질검사와 계단교체, 동네 보도블록 파손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 석수역에서 벽산아파트에 이르는 구간의 신규운행배스를 배치함으로써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의 보편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뉴타운선정 개발’ 건에 대해서는 “뉴타운 추진팀을 결성해 집행부에서 체계적이고도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다. 현재 신안산 특례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신안산선 추진은 관과 민이 하나가 되어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인접한 철제상가의 이전을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 일대는 주거중심지역으로 조성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하며 앞으로 다가올 신안산선으로 인한 역세권 개발이 가속을 받으면서 뉴타운 조성 자체가 모범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박의원은 또 “현재는 구민이 구청을 신뢰하는 분위기에 초연한데 보다 투명한 구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회의원도 직권을 넓혀서 전문가의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게 급선무입니다.” 앞으로 청소년육성 발전에 힘을 쏟고 싶다는 박 의원은 실질적인 결실을 위해 시스템정립을 강화시키겠다는 포부다.



◇ 정창식
금천구의회의원
(독산1동)

독산동 군부대 이전 후 구민위한 여가선용 시설 조성 계획 청사진 금천뉴스 2005-07-01

첫눈에 보기에 우직하고 강한 인상이다. 독산동 토박이로서 오로지 한 지역에서만 의정 활동을 벌여온 장창식 의원의 의정 활동을 살펴 보았다.

우선 장의원은 역세권을 비롯한 군부대 이전 부분 등 독산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입을 열었다.

"독산1동은 금천구내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독산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주변 개발과 적관장 이전, 군부대 이전 등 풀이갈 숙제가 많이 산적해 있다" 라고 말하고 "군부대 이전 부분은 현재 결정이 되어 내년부터 내후년쯤에는 이전이 완료 될 것으로 예상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구청사를 비롯, 구민을 위한 공원이나 위락 시설 등 지역민의 편의 사안이 들어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세부안을 구상중" 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되면 여가선용 공간이 부족했던 금천구민들로서는 숨통이 터지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독산지역의 국민체육에 대한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영구임대주택을 확충하고 공공근로와 취로사업을 확대해서 그들의 생계에 힘을 실어줄 계획" 이라고 밝혔다.

"제 자신이 어렵게 커온 시절이 있다보니 자연스럽게 지역의 소외계층에 관심이 많이 갑니다. 노인층과 극빈자들은 제가 외정 활동에서 손을 놓는 다 하더라도 계속 도움을 줄 생각이며 그에 따른 방안을 구상중" 이라고 말했다.

민원을 해결해 주었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는 장의원은 "예전 교통사고를 당한 학생을 위해 그 장소에 불과 6개월 만에 육교를 설치한 일이 기억에 남는다" 며 지역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에 경중을 두지 않고 개선해 나갈 것 이라고 한다.

현재 민원이 일고 있는 독산동 '중앙하이츠빌' 진입로와 적관장과 유수지로 인한 열악한 생활 환경 개선문제는 사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최대한 보완하는 선을 강구중이라고 말한다. 더불어 모든 민원을 풀어가는데는 현실적으로 벽에 부딪히는 경우도 종종 있어 구민들의 양해가 필요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한다.

또한 때가되면 계절마다 반발하는 뱃길 조성은 초기에 장의원이 안을 내놓아 추진한 것으로 반대도 만만치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지역의 명소로 회자 될 만큼 성공적인 작품으로 평가된다. 장의원은 평민당 시절 김대중 후보의 경호부장 역임을 시작으로 새정치국민회의 금천지구 사무국장에서 새천년민주당 금천지구 부위원장까지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군부대이전 주민지원회 실행위원장' 으로서 부대이전 문제만큼은 자신 스스로도 '총대를 메고 끝까지 완결'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외에도 안양천변 시설 확충과 협진사거리에서 독산역까지의 도로확장 공사, 우시장의 도축장 악취 및 폐수처리 문제 등 시급한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장의원은 추후 노인과 장애인 등 지역에서 소외된 층을 위한 복지시설 건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노인정과 탁아소 설치 마을회관 건립 등은 그러한 관심을 반영하는 것들이다. 결과적으로 지역민들 사이에서 부딪히고 그들의 회노에력을 함께 하는 민주주의적 사고방식과 한민 읍과도 정한 것은 끝까지 밀어 붙이는 불도저식 외정활동이 해당지역민에게 믿음을 주고 있다고 평가된다.

같은 지역에서만 4선을 역임한 것이 그 좋은 예라 볼 수 있다. "하면 된다" 는 좌우명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다는 그는 해병대 출신답게 '의리' 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을만큼 인간적인 신뢰를 중요시한다. 항상 예산문제로 애로가 많다는 것이지만 항상 주어진 여건 하에서 묵묵하게 지역살림을 챙겨가는 그의 행보를 주목해 보자.

'신안산선의 시흥대로 통과' 위해 전력질주 할 터 금천뉴스 2005-06-25



유은무
금천구의회의원
(독산본동)

금천구가 분구된 지 13년이 흐르면서 그동안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전면적인 발전 방안에 대한 각종 대책과 개선방안이 시행 되어 왔다. 이에 구 의회소속 의원들의 공약사항 점검과 현재 추진 사업, 그리고 임기 내 마무리 해야 할 여러 현안에 대해서 조망해 보는 지면을 편성해 보고자 한다. 개계순은 신문사 내부 지침에 의하여 실린 예정이며 본 기획을 통해 구민에게 알찬정보를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구의원 초선으로 지역의 발전을 위한 매진하다 보니 벌써 뒤돌아 볼 수 있는 세월이 흘렀다. 유은무 금천구 의원(독산본동)은 20년전 한국기와 니스 남서울 클럽 회장을 역임하면서부터 지역활동에 대한 인연을 맺었다. 우선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다. "신 안산선이 시흥대로를 통할 수 있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아직 국회승인을 앞두고 있던 하지만 구민들과 적극적인 홍보와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고 관계정부기관을 방문, 계속해서 취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유의원은 예산예결위원장으로서도 어려움을 토로한다.

예산은 정해져 있고 분야별, 지역별로 적절하게 배분하는 일이다 보니 고충의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그 외 문제들을 순서대로 짚어달라는 기자의 요구에 " 새로운 동사무소 건립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운동장 조성, 문성초등학교 지하의 주차장 확보, 남문시장 인근에 문화의 거리 조성 등, 거침없는 안건들을 내놓는다.

이중 동사무소 건립부분은 현재가시화 되어있는 상태이며 문성초등학교의 주차장 건은 금년말까지 용역 검토작업이 완료 되어 일부에 체육시설이 함께 지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현재는 교육청에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서울시와도 협의해야 하는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한다. 예산의 70%를 서울시에서 확보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의 안전문제가 확보된다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주변의 주차난은 깔끔하게 해결될 전망이며 학생들의 통학여건 또한 더욱 나아지리라 기대된다.

남문시장 문화의 거리 조성은 지역민들의 여론을 분석중인데 시골장터와 같은 향토적인 분위기와 구민들의 관심이 더해지면 지역의 명소로 부상할 전망이다.

오래전부터 이어온 봉사의 이력에 걸맞게 독산본동의 독거노인을 포함한 수많은 경로당을 수시로 방문, 이들을 위로해 오고 있는 유의원은 "지역의 불우한 틈새가정을 발굴하여 무료진료 알선 및 탁아소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고 밝히고 이를 위한 행정적인 뒷받침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 독산본동은 특성상 옛날의 낡은 건물 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태다 보니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한점이 많다 "고 토로 하면서 동인들이 '뉴타운' 개발을 시급히 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털어놓는다. 이를 위해 지역을 관통하는 동시간 도로개설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모든 생활의 근간은 교통문제에서부터 풀어나가야 한다는 지론에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산세 증감부분은 이에 대한 입장을 정확하게 알려 구민에게 바른 정보를 전달해야한다는 생각이다. 빠른 민원처리를 위해 항상 주민에 반대되도록 많이 다닌다는 그는 " 구민의 민원을 보다 빨리 해결하기 위해 요긴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물이나 구조물 개선책에 관련된 민원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펼쳐들어 확인하고 정확한 위치를 파악, 담당공무원에게 구체적인 지시 및 처방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 지역민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을 피력하며 구민은 물론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 수 있는 훈훈한 인간미가 우선이 되며 그것이 의정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유의원의 소망이다.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박준식 관악농협 조합장
국가산업발전 공로 석탑산업훈장
금천신문사 2005-07-14

관악농협 박준식 조합장이 국가산업발전의 공로를 인정받아 석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박준식 조합장은 농촌과 도시를 서로 이해하고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는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전국회원농협 최초의 대형 농산물 백화점(직거래장터)개설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소비지 유통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여 농촌 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지난 1983년 조합장 취임후 도시농협 본연의 사업은 “농산물 유통 사업”이란 신념으로 당시 경영 적자로 폐쇄됐던 본소 지하 판매장을 다시 개장 하는 등 취임초부터 농산물 판 매에 주력해왔다.

또한 직원들의 휴일근무 반대를 무릅쓰고 농협사업장 최초로 연중 무휴 영업을 실시해 도시 소비자에게는 우리 농산물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해왔다.



이와함께 고추의 소포장단위 판매 유도 및 감곡의 소포장 지도 등 소비자의 구매 동향과 소비취향을 제때 산지조합에 제공해 농산물 판매의 경쟁력 강화와 판매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박준식 조합장은 현재 청소전 선도위원회 서울지점 남부지역회장과 금천구 의회의원 (민주평통자문회)으로 지역사회에서도 왕성한 활동량을 자랑하고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자신감 충만 금천구의회 이종학의장 특별대담

금천신문사 2005-07-14

올해들어 금천구는 그 어느때보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활력이 넘치고 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해 보자’는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구의회도 마찬가지다. 순수 금천구 ‘토박이’인 금천구 의회 이종학 의장은 “금천구가 요즘처럼 역동적으로 ‘할 수 있다, 해 보자’는 자신감을 가졌던 적은 없었다”고 말한다. 막바지에 이른 97회 정례회 기간인 지난달 28일 구의회에서 이종학 의장을 만나 취임 3주년을 지나는 시점의 의회의 변화와 구 현안에 대해 들었다.

▶ 취임 3년이 지나간다. 그동안의 취임초기와 비교해 의회의 변화된 모습을 말해달라

열린의회, 구민과 함께 하는 의회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의정도우미제도, 홍보CD 제작, 배포, 구민견진 및 어른 적극 수용, 초등생 모의의회 개최 등을 통해 구민과 함께 호흡하는 의회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또 공부하는 의회로 변화고 있다. 자연스럽게 의원들의 수준도 관련분야 전문가 못지않게 상당히 높아졌다. 이는 민원인들의 수준이 그만큼 높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민원인들을 접하면서 의원들이 공부하지 않고는 안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타 자치구보다 나후된 구 발전을 위해 (의회는) 단순히 집행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과 함께 집행부에서 일을 추진하는데 힘을 실어주는 역할에 주력하고 있다. 실제로 구 종합청사 신축·녹지공간 확충·노인복지시설 유치 등 구가 추진하는 사업에 의회도 역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상임위 구성을 못해 효율적인 의정에 지장은 없나

현행 법규상 의원이 13명이 안돼 상임위 구성을 못하고 있다. 인구에 비해 행정동이 12개로 적은 편이다. 이로 인해 구의원도 12명이지만, 인구로 따지면 의원수가 17명인 종로구보다 많다. 종로구 인구는 18만여명이지만 금천구는 26만여명에 달한다. 의안수요도 많아 상임위 운영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서울시 자치의회 중 유일하게 상임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저하는 물론이고, 깊이



있는 의안처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상임위를 설치할 수 있도록 2개안을 마련해 정부에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먼저 지방자치법시행령 중 상임위 설치기준을 완화시키는 안으로 현재 13인 이상의 구의원이 있는 곳만 상임위 설치를 하도록 한 것을 12인 이상으로 낮추자는 것이다. 다음으로 법령에 인구 관련 단서규정을 신설해 의원수가 13인 미만인 자치구도 인구가 20만명을 넘으면 상임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 올해들어 시계경관지구가 해제되는 등 구 현안들이 풀려가고 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어떻게 풀어나 가야 하나

구 종합청사 건설, 디지털단지의 국가단지 해제, 뉴타운 지정 등 집행부와 힘을 합쳐 풀어나가야 하는 현안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구 청사가 없어 세들이 사는 곳은 금천구뿐이다. 오는 11월 쯤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최대한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힘을 모을 것이다. 또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가운데 제2단지를 국가산업단지에서 해제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해체후 이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폐선 로데오거리’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국가공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디지털산업단지 중 2단지를 계속해서 국가산업단지로 묶어 둘 이유가 없다. 이밖에 시흥23.5동의 뉴타운 지구 지정과 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안양천 생태공원 조성사업, 신안산선 조기착공을 위한 의회 내 특위 구성 등 현안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衿川議會報



<http://council.geumcheon.go.kr>

금천구의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 발 행 인 : 금천구의회 의장 이종학
- 편 집 : 금천구의회사무과
- 주 소 : 금천구 시흥동 992-12
- 전화번호 : 890-2442, FAX : 892-0249